

# 전주한지 세계화 '급물살'

### 프랑스 한국문화원... 전주한지 컨퍼런스·체험·전시 국제한지 컨퍼런스와 합죽선, 한지 킷박스 제작체험 한지공예품·조선왕조실록 등 한지복본물 전시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투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복원용지로 활용했던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면서 전주한지의 세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주시는 전주한지의 전통과 멋과 실용성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프랑스 파리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행사가 파리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내 전시장에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테이스트 코리아' 행사의 일환으로 전주한지 컨퍼런스와 한지 공예품 제작 체험, 합죽선과 단선, 닥인형 등의 공예품과 조선왕조실록 및 완관본 서적을 비롯한 한지 복본 전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 중 프랑스와 한국의 한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한지 컨퍼런스에서는 임현아 한지산업

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이 전주한지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한지

를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한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100여명의 파리 현지 어린이들은 부채와 깃발집 등을 한지로 만들면서 한지의 독특한 재질과 색감에 흥미로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투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과 교황청 소장 기록문화재 전주한지 복본 전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전주한지 활용 등에 이어 유럽문화의 심장부인 파리에서 전주한지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가 열리게 됐다"는 것은 전주한지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산업화·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프랑스 파리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행사가 파리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사업 참여 희망 공동주택에 선착순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비 지원

전주시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동주택 42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간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가구별 태양광 설치규모에 따라 1W당 2,010원으로, 300W 태양광설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당 60만3천원이다. 300W 태양광설비 기준 본인부담액은 약 20만원이다.

특히, 월 전기요금에 3~6만원이 나오는 가정에서 300W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월 평균 6,8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별 2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선정된 참여(시공)업체 선택 한 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총 2억4800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474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생산'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기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는 햇살아파트 주민들을 늘리고,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해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 에너지전환과(063-281-509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국제 넷볼대회 열린다

전주시넷볼협회와 아시아넷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8 전주국제 넷볼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와 넷볼 경기 실력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리는 국제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23일 10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터키, 대만, 필리핀, 대한민국) 약 200여명의 선수단의 넷볼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

# 대한민국·터키·대만·필리핀 등 4개국 출전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국 선수들을 위해 전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시티투어(한국어를 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넷볼대회는 전주가 중주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 인

기가 많은 종목으로 전국에서 300여명 동호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2018 전주국제 넷볼대회를 통해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정읍 아파트 추락 여성 의식 되찾아

### 추락 여성 "당시 상황 기억 안 난다" 진술

정읍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한 20대 여성의 의식이 돌아왔지만 사건 경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A(26·여)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 직후 A씨는 남편인 B(34)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였다.

더구나 B씨는 구조 신고를 하고도 현장에서 사라져 강력범죄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 폰 추적 등을 통해 B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추적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A씨 추락 직후 타고 나간 차량을

정읍시 감곡면의 한 도로변에서 찾기도 했지만 그의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이 같은 상황에 A씨의 의식이 돌아와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B씨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신이 안정적이지 않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B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전주시, 양성평등 실현 '앞장'

### 실무 직원 대상 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상 속 성차별 개선·성평등 문화 확산 유도

전주시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실무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인지 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정책·관습·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각종 정책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및 사업수혜의 차이를 분석 평가해 해당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임정규 대전여성정책네

트워크 공동대표와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시행·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해 정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기법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첫째 주에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범시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병든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열 예정이다.

올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500여명의 여성단체회원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평등 약속 실천결의 및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일상의 성평등 실현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세금이 필요해서" ... 지인 차량 턴 30대 입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차량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

던 B(31)씨의 차량에서 7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영업자를 하며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